

“여수처럼 대박” 전남 케이블카 열풍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내년 시범 운행 ... 목포·진도·담양 추진 수익 저하·애물단지 전략·환경 훼손 우려에도 지자체들 낙관

전남에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 최초 해상에 건립된 여수 케이블카가 대박 나자 목포·해남 등 전남 곳곳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여수·목포시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네번째로 해상에 도입된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연간 탑승객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됐다.

여수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1.5km 거리를 20여분간 왕복하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최대 95m 높이에서 이순신광장, 진남관부터 다도해 풍광을 한눈에 즐길 수 있어 대표 관광명소로 성장했다. 지난해 방문객 220만704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문객도 72만635명에 달했다.

목포와 해남~진도에서도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이다.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는 애초 오는 10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내년 4월로 개통이 미뤄졌다. 길이 3.23km(해상 0.82km, 육상 2.41km)로 국내에서 영업 거리가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에도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다.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타워를 잇는 길이 1.12km(울돌목 0.92km, 진도 녹진~진도타워 0.2km), 사업비 320억원이 소요되는 울돌목 케이블카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착공을 목표로 삼았으나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되면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바다뿐 아니라 산에서도 케이블카 붐은 계속되고 있다. 구례군은 1990년대부터 지리산에 3.1km 길이의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남 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지와 각축전을 벌여왔다.

담양군도 최근 담양호를 사이로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은 추월산 정상까지 이동로로써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나 사업성 등을 고려해 금성산까지로 종연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제외하고는 환경 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는 크지 않다. 다만 유달산 경관 훼손을 염려해 목포지역 환경·시민 단체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접한 경남 통영과 사천에도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전남 곳곳에 비슷한 케이블카가 난립하면 수익은 나지 않고 환경과 경관만 훼손하는 애

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애초 사업성을 믿었던 경남 밀양시의 얼음골 케이블카와 전북 정읍의 내장산 케이블카 등 많은 관광용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낙관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다뿐 아니라 유달산과 목포 구도심을 함께 볼 수 있고, 왕복 40분이라는 긴 이용시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할 수 있어 여수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했다.

해남과 진도군은 역시 다른 지역보다 길이는 짧지만, 명량대첩 승전지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소용돌이치는 울돌목 바다의 초자연 현상이 감정이 있으며 타당성 조사 시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군, 2022년까지 장군 76명 감축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

문 정부 '국방개혁2.0'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 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준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다만,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면서 실질적 감축은 40여 명 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 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며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도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 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61만8천명인 병역은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체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올해 40만6000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연합뉴스

박종철 열사 부친 별세

각계 각층 인사들 조문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6월 항쟁의 도화선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지난 28일 오전 5시48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박씨는 지난해 초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거동 불편으로 온종일 누워 지냈다. 최근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며칠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식이 저하된 전 해였다.

유족으로는 종부씨, 박 열사의 누나 은숙(55)씨가 있다. 빈소는 부산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7시다. 고인은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먼저 묻힌 아들 옆에 안장될 예정이다.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소크사로 위장하려 했다.

6·10 항쟁의 기록제가 된 이 사건은 올 초 개봉한 영화 '1987'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박 씨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찾아 조문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조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문화원 조직개편 ... 콘텐츠·지역협력사업 강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이하 아문)이 전사·공연 등 콘텐츠 사업과 지역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영단 22면>

29일 아시아문화원에 따르면 고객중심 서비스 및 지역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8월 1일자로 단행한다. 아시아문화원은 이날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장·팀장급 22명의 후속인사도 발표했다.

4본부 1연구소 1센터 2부 16개팀으로 구성된 현재의 직제를 4본부 1연구소 1센터 16팀으로 변경해 2개 부를 폐지함으로써 보직감축·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효율화를 도모한다.

경영 부문 혁신을 위해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는 대신, 혁신·일자리 창출·사회적 가치·지역협력 등을 지향하는 정부의 공공부

문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혁신평가팀을 신설한다. 콘텐츠사업본부도 새로 꾸려 창작과 제작·공연·전시 부문을 통합·관리하고 장르·기능 간 협업구조를 마련해 4차산업 중심의 콘텐츠 기획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협력팀을 신설하고, 기존 민주평화교류팀을 민주평화교류센터로 승격해 국제교류기능을 한층 확대한다. 문화사업본부도 신설해 고객 분석과 만족도를 관리하고 편의시설·대관업무 서비스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軍, 2022년까지 장군 76명 감축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

문 정부 '국방개혁2.0'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 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준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다만,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면서 실질적 감축은 40여 명 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 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며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도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 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61만8천명인 병역은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체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올해 40만6000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연합뉴스

최악 폭염에 전남 휴양림 인기

7~8월 예약률 90% ... 상반기 이용객 84만명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전남 산림휴양시설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사·군과 민간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5곳, 치유숲 4곳, 산림욕장 30곳, 산촌생태 마을 41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숲 총면적은 각각 1600ha에 달한다. 지난 상반기 이용객은 84만명을 기록했으며, 7~8월 여름 성수기 자연휴양림의 예약률은 90%를 넘어섰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면 숙박을 원하는 날 60일 전에 사·군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휴양림마다 꽃과 나무 등 숲해설 프로그램, 힐링 음악회, 명상 체험, 숲길 걷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최근 캠핑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연휴양림에 가족단위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옥외캠핑장 20면, 데크캠핑장 134면, 일반캠핑장 65면 등 220면의 캠핑장을 갖췄다.

봉진면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남의 산림휴양 시설을 찾아 피서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추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 하 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

하나님 나라 일군을 양성하는
GCDS 광주국제기독교스쿨

2학기 신입생 모집

LEVEL 05 고등 3학년, 국제반 3단계
LEVEL 04 고등 2학년, 국제반 2단계
LEVEL 03 중등 3학년, 고1 국제반 1단계
LEVEL 02 중등 1,2학년 기본 교육과정
LEVEL 01 초등 5,6학년 중등 예비과정

English Summer Camp
일시 : 2018. 8. 6~10
장소 : 광주국제기독교스쿨

광주국제기독교스쿨은

1. 성경적인 영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 인성,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자성을 갖추도록 양육합니다.
2.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탄탄한 영어교육을 실시합니다.
3. 주요 과목을 알차게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광주국제기독교스쿨의 교육과정
영성, 영어, 자질을 훈련합니다.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상담 문의 ☎ 061-381-0000 / 1365
010-9960-0091 (행정실장)
http://mygcds.com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동길 42-34(성도리 산72)